

06 초 등 학 부 모 용

학원을 언제 시작할 것인가

아직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까닭

- ◆ 이 자료는 **무료**입니다. 마음껏 나눠 주십시오.
- ◆ 법령과 학교가 발표한 요강만 정리했습니다. **예측하지 않습니다.**

CONTENTS

01 숫자부터	2
02 무엇이 다른가	3
03 언제 시작하나	4
04 그래서 무엇을	5
05 자주 묻는 것	6

무엇이 들어 있나

- ◆ 초등 참여율 **84.4%** · 고등 63% — 가장 급하지 않은 시기에 가장 많이 합니다
- ◆ 학원이 잘하는 것과 **구조상 못 하는 것** — 갈라 두면 순서가 보입니다
- ◆ **시기가 아니라 신호로 정합니다** — 시작해야 할 신호 셋
- ◆ 석 달마다 다시 보는 법 · 인쇄용 점검표 여덟 가지

01 · 숫자부터

가장 이른 시기에 가장 많이 합니다

「다들 벌써 학원을 다니던데, 저희만 안 보내고 있는 것 아닌가요.」

초등 상담에서 가장 자주 듣는 말입니다. 「다들」이 맞습니다. 숫자로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숫자가 「그러니 보내야 한다」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국가데이터처와 교육부의 사교육비 조사입니다.

학교급	참여율	참여 학생 월평균
초등학교	84.4%	51.2만 원
중학교	73%	63.2만 원
고등학교	63%	79.3만 원

초등학교 참여율이 가장 높습니다. 84.4%로, 고등학교 63%보다 21.4%p 높습니다. 입시에서 가장 먼 시기에 가장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거꾸로 돈은 고등학교에서 가장 많이 씁니다 — 참여 학생 기준 월 79.3만 원입니다. 정말 필요한 시기는 뒤에 있고, 참여는 앞에 몰려 있습니다.

그러니 물음을 이렇게 바꿔 보십시오. 「남들이 하니까 시작할 것인가」가 아니라 「6년 뒤에 힘이 남아 있게 하려면 언제 시작할 것인가」입니다.

출처: 국가데이터처·교육부 「2025년 초·중고 사교육비조사 결과」. 해석은 저희 판단입니다.

02 · 무엇이 다른가

학원이 잘하는 것과 못하는 것

학원이 **확실히** 잘하는 것이 있고 구조상 못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학원이니 이 말씀은 조심스럽지만, 갈라 두는 편이 도움이 됩니다.

	학원이 잘하는 것	학원이 못 하는 것
무엇을	모르는 것을 설명해 주기	스스로 앓는 습관 만들기
	진도를 끌고 가기	궁금해하는 마음 만들기
	시험에 맞춰 정리하기	노는 시간에 붙는 것들

왼쪽은 학원이 훨씬 잘합니다. 혼자 하기 어렵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들입니다. 필요할 때 쓰시면 확실히 값을 합니다.

오른쪽은 구조상 어렵습니다. 학원은 정해진 시간에 시켜서 하게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앓는 습관은 「시키지 않아도 하는 것」이라 시키는 방식으로는 만들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순서가 중요합니다

오른쪽이 없는 상태에서 왼쪽을 오래 하면 「시켜야 하는 아이」가 됩니다. 그리고 중3·고등에 가면 시킬 시간 자체가 모자랍니다. 과목이 늘고 양이 늘어 혼자 하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지기 때문입니다.

앞서 보신 대로 중3 수학 보통학력 이상이 49.6%입니다. 초등 참여율이 84.4%인데도 그렇습니다. 초등에 오래 다닌 것이 중등의 결과를 만들어 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출처: 국가데이터처·교육부 사교육비조사(2025), 교육부·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25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학원의 역할에 대한 구분은 저희 판단입니다.

03 · 언제 시작하나

시기가 아니라 신호로 정합니다

「몇 학년부터」로 답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아이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대신 **신호**를 드리겠습니다. 이 가운데 하나라도 있으면 그때가 시작할 때입니다.

Q. 하나 — 학교 수업을 못 따라갈 때

가장 분명한 신호입니다. 학교에서 모르고 넘어간 것이 쌓이면 **다음 단원이 통째로 막힙니다**. 수학이 특히 그렇습니다.

이때는 **미루지 마십시오**. 비어 있는 기간이 길수록 **메우는 비용이 커집니다**.

다만 **진도를 나가는 수업이 아니라 비어 있는 자리를 메우는 수업**이어야 합니다. **그 둘은 다릅니다**. 학원을 고르실 때 이것부터 물으십시오.

Q. 둘 — 집에서 가르치다 사이가 나빠질 때

흔하고,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부모가 가르치면 **모르는 것에 화가 납니다**. 남의 아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공부 때문에 관계가 상하는 것은 성적보다 큰 손해입니다. 그럴 때는 **남에게 맡기시는 편이 낫습니다**. 이걸 **돈으로 관계를 사는 것이고, 값을 하는 지출**입니다.

Q. 셋 — 중학교 진학이 가까울 때

초6 겨울은 대부분의 아이에게 합리적인 시점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중학교는 **재는 방식이 바뀌는 곳**입니다 — 범위가 넓어지고, 시간이 모자라고, 부분 점수가 없어집니다. **이건 겪어 봐야 늘고, 혼자서는 겪어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때도 필요한 것은 **진도가 아니라 「시험을 한 번 치러 보는 것」**입니다. **중1 진도를 두 학기 빼는 것보다 시험을 두세 번 겪는 것이 첫 학기 성적에 더 크게 작용합니다**.

반대로 **이 신호가 없는데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남들이 하니까**」입니다. 그건 신호가 아닙니다.

이 장은 저희 상담 경험에서 나온 판단입니다. 아이마다 다르므로 일반적인 처방으로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04 · 그래서 무엇을

정하는 차례와 점검표

차례	무엇을	왜
1	신호가 있는지 봅니다	없으면 아직입니다
2	있으면 그 과목만 시작합니다	전 과목이 아닙니다
3	혼자 하는 시간이 남는지 봅니다	안 남으면 줄입니다
4	석 달 뒤 다시 봅니다	계속할지 정합니다

3번이 가장 자주 어긋납니다. 학원이 늘면 혼자 하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하루는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등 이후에 실제로 실력을 만드는 것은 혼자 하는 시간입니다. 학원은 그 시간을 채워 주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잡아 주는 것입니다.

4번도 중요합니다. 한 번 시작한 학원은 관성으로 이어집니다. 석 달마다 「이게 지금 필요한가」를 물어보십시오. 필요가 끝났는데 계속 다니는 경우가 흔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확인하실 여덟 가지

- ☐ 학교 수업을 못 따라가고 있는가
- ☐ 집에서 봐 주다가 사이가 나빠지고 있는가
- ☐ 지금 아이에게 혼자 하는 시간 이 있는가
- ☐ 학원을 더하면 그 시간이 남는가
- ☐ 아이가 쉬는 시간 이 하루에 있는가
- ☐ 「남들이 하니까」가 이유의 전부는 아닌가
- ☐ 그 학원이 진도 를 나가는가 구멍 을 메우는가
- ☐ 석 달 뒤에 다시 볼 계획 이 있는가

여섯 번째가 「그렇다」이면 조금 더 기다려 보셔도 됩니다. 남들이 시작한 시점이 내 아이에게 맞는 시점일 이유가 없습니다.

입시CUBE가 드리는 말씀

저희에게 가장 손해가 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초등에서는 학원을 늦게 시작하실수록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같은 곳은 일찍 오실수록 좋습니다. 오래 다니시니까요. 그런데 6년을 버텨야 하는 일에서 초등에 힘을 다 쓰면 정작 필요한 때 남아 있지 않습니다. 신호가 오면 그때 오십시오. 그때는 저희가 확실히 도움이 됩니다. 신호가 없다면, 그 시간에 읽고 놀리시는 편이 3년 뒤에 남는 것이 많습니다.

05 · 자주 묻는 것

초등 학부모님이 실제로 하시는 질문

Q. 지금 안 하면 나중에 따라잡기 어렵지 않나요?

과목에 따라 다릅니다. 그리고 대개는 따라잡힙니다.

따라잡기 어려운 것부터 말씀드리면 — 읽는 힘과 공부하는 습관입니다. 이 둘은 오래 걸리고 **고등학교에 가서 만들기가 몹시 어렵습니다.**

따라잡히는 것은 진도입니다. 초등에서 앞선 진도는 중등에서 대개 만납니다. 학교가 **모두에게 같은 진도를 다시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물음은 이렇게 바뀝니다. 「**지금 하는 것이 따라잡히는 것인가, 안 따라잡히는 것인가.**」 진도라면 급하지 않고, 읽기와 습관이라면 지금이 맞습니다. 그리고 뒤엣것은 학원보다 집에서 잘 됩니다.

Q. 아이가 학원에 가고 싶어 하는데요?

그건 좋은 신호입니다. 진지하게 보셔도 됩니다.

다만 **이유**를 한 번 물어보십시오. 「**친구들이 다 가서**」가 이유라면 — 나쁘지 않습니다. 그 나이에 **친구와 같이 있는 것**은 실제로 중요한 일입니다. 다만 그렇다면 공부 효과로 기대하지는 마십시오. 그리고 더 싸고 덜 지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모르는 게 답답해서**」가 이유라면 — **가장 좋은 시작**입니다. 스스로 필요를 느낀 상태라 같은 수업에서 훨씬 많이 가져갑니다.

어느 쪽이든 아이가 원해서 시작한 것은 오래 갑니다. 부모가 정해서 시작한 것보다 훨씬 그렇습니다.

한 줄로 남기면

학원은 몇 학년에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신호가 왔을 때 시작하는 것입니다. 신호가 없다면 아직 아닙니다.

이 자료의 통계는 국가데이터처·교육부 「2025년 초·중고 사교육비조사 결과」와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2025)입니다. 시작 시점에 관한 판단은 저희 상담 경험에서 나온 것이며 아이마다 다릅니다. 이 자료는 성적 향상이나 특정 선택의 우위를 보장하지 않습니다.